

뻔하고 촌스럽지만, 신파는 힘이 세다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

이영미 지음



대중소설, 영화, 대중가요, 방송드라마... 대중예술의 범위는 폭넓다. 당대의 서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이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 신파(新派)는 촌스럽고, 통속적이며, 저속하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100년 이상 한국대중예술의 중심에 서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퍼즐같이 흩어진 각 분야의 대중예술을 시대 순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영미 성공회대 초빙교수가 최근 펴낸 '한국 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학문적 대답이다. '눈물의 미학' 신파는 한국대중예술사를 읽는 하나의 열쇠이다.

이 교수는 '신파'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1910년대 신소설 '장학공'부터 1990년대의 방송드라마 '모래시계'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대중예술의 변화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이를 저자는 '신파성'으로 본 한국대중예술의 사적(史的) 연구'라고 표현하며 ▲신파성이 확립된 식민지 시대 ▲신파성 부침과 경향이 이뤄진 1950~60년대 ▲신파성의 해체와 쇠락



청춘영화 '맨발의 청춘'(감독 김기덕·1964년)은 뒷골목 밀수조직원과 여대생의 사랑이야기를 다뤘다. 계층상승을 꿈꾸는 '신데렐라맨'과 청바지, 스윙댄스, 위스키 등 1960년대 초 유행과 다른 것을 보여주며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다. <푸른역사 제공>

이 본격화된 1970~80년대 등 세 시기로 나눠 분석했다. 신파는 일본에서 유입된 용어이다. '새로운 경향(뉴웨이브)의 연극'이라는 의미로 출발한 신파는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공연 관행을 지닌 연극양식을 이르는 말로 정착했다. 과장된 대사 억양과 움직임 등의 연기 경향, 감정표현에서 과도한 비애를 드러내는 최후적(催淚的) 경향을 지적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적 특질로서의 '신파성'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신파성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중예술 속

에서 유지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 대중예술의 수용자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특정한 사유방식, 즉 세계전유 방식과 조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저자는 식민지 시대 신소설과 가요에서 출발해 하얀 가죽제품, 청바지, 스윙댄스 등이 등장하는 '맨발의 청춘'(1964년) 등 청춘영화들과 포크송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청년문화, 1980년대 순정만화, 1990년대의 문학·음악, 2010년대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의 저변을 훑는다. 대중예술은 현재도 끊임없이

생산되고 수용자들은 이를 향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파의 미래는 어떠할까? 저자는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개인주의적으로 바뀐 21세기의 대중들이 이전과 같은 신파성을 자신의 주요한 미감으로 삼을 가능성은 낮다"며 "여전히 가족 등 집단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인들에게는 신파성이 신데렐라 이야기나 복수·성공담, 공포물 등 다른 예술적 관행의 주도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푸른역사·3만8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군함도 1,2=일제강점기 하시마 강제징용과 나가사키 피폭의 문제를 다룬 한수산의 장편소설. 2009년 일본어판 '군함도'를 대폭 수정하고 원고를 새로 추가해 3500매 분량으로 완성된 결정판이다. 등장인물들의 출신과 배경 등이 새롭게 설정됐고 원폭 투하의 배경과 실상을 전면 개고해 사실에 가까운 묘사를 추구했다. 등장인물들의 고난은 자아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소설적 구성미와 완성도를 높였고,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재미와 가독성을 끌어올렸다. <창비·각 권 1만4000원>



▲강의 이야기를 듣다=동서양의 이름난 물줄기와 한반도의 작은 하천까지 모두 주제로 삼아 신화와 문학, 철학과 과학, 종교와 정치, 역사와 기억을 넘나들며 물과 교양은 인간 초상의 면면을 그렸다. 민물을 프리즘 삼아 인류의 정신과 문화를 되짚어본 역사적 기록이다. 기본적인 생활 조건부터 그 주변에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 자연과의 공존까지 전혀 다른 차원의 답으로 환원한다. <글항아리·1만7000원>

▲기원 the Origin=재단법인 카오스에서 기획한 대중 과학 강연을 바탕으로 한 강연 단행본 시리즈 1권.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10회에 걸쳐 1500여명의 다양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2015 북카오스 강연 The Origin(기원)'을 담은 것으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등 각 분야의 기원을 통해 인간이 가진 질문, 그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깊고 유쾌하게 파고든다. <휴머니스트·2만2000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50가지=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

는 독서법을 소개하는 책. 책에서 제시하는 재미있는 독서법의 핵심은 '소통'이다. 책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찾아두었다가 책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 소통의 책 읽기다.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을 때까지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보고, 만약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과감히 던져버리고 다른 책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원앤원북스·1만5000원>

▲중 인 리서스=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사회와 경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한편,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비즈니스 팁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인들의 독특한 호칭과 그 유래를 설명하며 러시아인과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이름과 부칭을 함께 부르던 단면에 호감을 살 수 있다는 팁을 알려주고 보드카가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보드카를 마실 때 첫 잔은 꼭 원샷을 해야 한다는 러시아식 주도(酒道)를 귀띔해 준다. <삼성경제연구소·1만5000원>

자연 속에서 작품의 영감을 길어올린다

산골로 간 예술가들

박원식 지음

소설가 박원식은 논산에 살고 있다. 자연과 벗삼은 그는 외골수의 느낌이 나서, 예술가는 홀로 세계와 귀신과 맞장 뜨는 단독자에게 그곳이 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원식에게서 '자해공갈단'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두주불사였던 소설가 김성동은 양평 용문산 자락에 산다.

'유기농평크포크의 창시자이며, 슈퍼백수이자 떠돌이 뮤지션' 사이는 아내, 아홉살 아들과 총복 과산 군자산 아래서 '돈 없이도 팔자 늘어지게' 산다. 박원식씨가 펴낸 '산골로 간 예술가



들'은 저자가 '예술을 업(業)으로 삼은 사람들, 산골을 떠돌며 시골에 박혀사는 예술인들의 동태와 습속을 살펴온 기록'이다.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199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모래의 섬'으로 등단한 저자는 '산이 좋아 산에 사네', '산촌여행의 황홀', '산중 암자에서 듣다' 등 오랫동안 자연과 문화에 대한 글을 써왔다. 저자는 "명민한 예술가는 자연의 다양한 동향을 통해 사물의 본성, 인간의 본연, 세상의 본질을 느낀다. 자연에 대한

날렵한 성찰로 삶을 보는 눈썰미를 얻고, 작품에 쓰일 영감이라는 걸 길어 올리며, 현실의 파장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항해술을 터득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자연'으로 돌아간 자연과 그곳에서 삶의 이야기를 발뚱 팔아가며 들으려 다닌 이유다. 저자는 고감, 성찰, 조화, 물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자연 속으로 들어간 25명의 예술가를 만났다. 책 제목은 '산골'이지만 아주 깊은 곳만을 찾지는 않았다. '도시를 벗어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지역 작가들의 모습도 보인다. 무등산 자락 한옥에 살고 있는 강연준 화백은 '광주의 화가'이기를 원했고 그게 행복했다고 고백한다. 또 고민이나 나태로 흔들릴 때 자신을 잡아준 것은 무등산이

라는 거인의 눈높이 주는 자극이었다고 말한다. 즐겨가는 막걸리집 영흥식당 이야기도 반갑다. '화가'이자 '조경가'라고 말하는 시원 박태후 선생을 찾아가는 곳은 나주시 금천면 죽실현이다. '자연과의 동화를 구현하는' 한국식 정원을 만들겠다는 '보잘 것 없지만 꼭 이루고 싶은 꿈'을 꾸며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40년 가까이 나무를 키워온 그는 '한겨울 눈 내린 갈나무에 살포시 앉아 감을 쪼며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행복 자체'라고 말한다. 책은 그밖에 소설가 문순태(담양), 도예가 이수중(경기도 화성), 서양화가 최석운(경기도 양평), 도예가 김정옥(경북 문경), 목수 이정섭(강원도 홍천) 등도 만났다. 월간 '사람과 산' 주민속 사진기자가 저자와 동행하며 작가들의 모습을 영감에 담았다. <창해·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책

▲친구 사이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 그동안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던 친구 사이에 쌓이게 되는 오해와 편견들, 그리고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와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라임·9200원>



그만두야 하는 건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엄마들에게 공감이 갈 그림책. '엄마 껌딱지' 시기를 다루는 아이의 시선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려 보고, 엄마와 잠깐 헤어지는 게 아픈 이별이 아니라 '마음이 지라는 시간'일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보여 준다. <그래이아기·1만2000원>

▲틸라, 추비박과 하늘을 나는 기차 = 명랑하고 즐거운 틸라와 용처럼 거대한 박쥐 추비박의 모험 이야기. 틸라는 허튼소리만 늘어놓는 알사탕, 위장 모자 등을 이용해 갑작스럽게 닥친 위험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친구들과의 건강한 우정을 쌓아간다. 틸라의 신나고 흥미진진한 모험기는 용기와 슬기, 정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씨드북·1만1000원>

▲큰일 한 생쥐=꼬마 생쥐 새앙이의 모험을 그린 책.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보잘 것없는 존재인 새앙이가 누구에게도 주목 받지 않고, 자신만의 꾀와 재주로 활약하는 모습이 뿌듯한 감동을 안긴다. 희곡 작업을 해 온 작가 특유의 말맛이 살아 있어 소리 내어 읽기에도 좋다. <창비·8000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4천 ~ 9억8천만원)
-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 8억원(전세가 상승중)
-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

근린상가 NPL 매각

- 분양가 336억원(1771평), 채권최고액 330억원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
-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

제척부지 NPL 매각

-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 한화컨소시엄)
-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맑은터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관광을 진흥시키고 고객 만족을 위하여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 ▶ 단채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급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